

[98 JCC (예수공동체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3)

복음의 배반자들 - 유다와 베드로

[본문 요한복음 13:31-38]

하용조 목사/ 페이지수: 6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우리는 자아가 깨어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성품과 성격과 사고방식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첫째날의 메시지는 ‘한 알의 밀’이었습니다. 우리가 20일 특별새벽기도 기간 내내 들어야 할 메시지도 바로 ‘한 알의 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의 용기

둘째날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뺏뺏하게 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발을 씻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허리가 숙여지고 마음도 숙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13:14,15)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의 삶이란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에는 ‘나는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 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무 것도 아닌 우리도 당연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삶’이란 말은 멋있고 거창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섬김에서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잘 하지만 끝은 잘 맺지 못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방황하거나 목적을 잊고 수단 속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선교사들 모임에서 이병현 장로님이 하시던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이 끝나고 장로님의 순서가 되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